

Harris, Chauncy D. and Fellman, Jerome D, *International List of Geographical Serials*, 3rd ed. 1980,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193, 457pp.

시카고大學 地理學科의 해리스(Harris) 교수와 일리노이大學의 펠만(Fellman) 교수의 「地理學雜誌 國際總目錄」은 1960년에 初版을 낸 이래 1971년에 第2版을 냈고, 드디어 1980년에 第3版을 발행했다. 시카고大學 「地理學科 研究論文集」 193호로 발행된 이 목록은 30여년간의 노력의 축적이며 세계 여러 地理學者들의 협력, 해리스 교수의 탁월한 外國語능력과 IGU 事務總長,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와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의 회장을 역임한 美國內 및 國際的인 地理學交流의 主役을 맡아온 배경에서 이루어진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序文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 목록은 세계의 地理學 連續刊行物을 現行 또는 終刊된 것을 막론하고 모두 모은 總目錄(inventory)이며 3,445種의 지리학 연속간행물이 수록되어 있다. 3,445種中 1089種은 현재 刊行되고 있는 것이다. 連續刊行物(serials) 중에는 季刊, 月刊과 같은 定期刊行物과 不定期刊行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學會의 專門的인 學會誌, 學科의 論文集 외에 IGU의 發表論文要約集(*Comptes Rendus*), *IGU Bulletin*, 地理學者·研究機關名簿(*Orbis Geographicus*) 등도 포함되어 있다. 目次를 보면 總目錄作成 協助者名單과 주소(76명), 謝辭(acknowledgements), 序言, 總目錄의 編輯, 資料目錄, 地理學雜誌集의 研究, 雜誌綜合目錄(union list)에 의한 圖書館의 地理學雜誌 所藏目錄, 各雜誌에 대한 記載內容, 國家別 地理學雜誌目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各雜誌에 대한 記載內容은 學會誌名, 發行學會 또는 發行處名, 創刊號年度, 發行回數, 內容의 概

要, 外國語要約의 有無, 發行處住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雜誌의 內容과 그것을 注文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960年 初版은 1,651種의 잡지를 수록한 194면의 책이었고, 1971년의 2版은 2,415種을 수록한 267면의 책이고, 3版은 이미 言及한바와 같이 3,445種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第3版은 第2版보다 1,030種이 증가되었으며 1960~1971, 즉 11년간에 매년 약 70종씩 地理學雜誌가 증가한 셈이고, 1971년에서 1980년 사이에는 매년 114종씩 증가되었다. 그리고 1950年代에는 매년 45종씩 증가했다고 해리스 교수는 말하고 있다. 제2판과 제3판을 비교해 보면, 제3판에는 제2판보다 1030종이 추가 또는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에 있던 내용도 대부분 보충 수정되어 있다. 韓國內容을 보면 제2판에는 大韓地理學會의 「地理學」이 수록되었을 뿐이었으나 제3판에는 「地理學과 地理教育」, 「地理學論叢」, 「應用地理」가 추가되어 있다.

이 目錄에 실린 現行刊行物 1089종중에서 443종을 골라 이 책의 姉妹編인 「註解 地理學雜誌 選別目錄」에 실었다. 해리스 교수는 이외에도 地理學 參考文獻集 저술에 많은 공헌을 했으며 *Bibliography of Geography, Part I.* (1976), *Guide to Geographical Bibliographies and Reference Works in Russia or on the Soviet Union* (1975), 등을 각각 시카고大學 地理學科 研究論文集 No. 179, No. 164로 출판했다. 이 책은 地理學者뿐만 아니고 地域研究에 관련되는 學問分野 연구자에게 귀중한 문헌이 될 것이다. (李 燦)

Harris, Chauncy D., *Annotated World List of Selected Current Geographical Serials*, 4th ed. 1980, University of Chicago, Department of Geography Research Paper No. 194, 165pp.

위에 실린 「地理學雜誌 國際總目錄」의 姉妹編으로 편집된 「註解 地理學雜誌 選別目錄」은 現行地理學 連續刊行物(serials) 中에서 443종을 골라 간단한 註解를 부친 책이며 시카고大學 「地理學科 研究論文集」 제 194 호로 발행되었다. 國際(international), 國家別로 실려 있는 地理學關係 連續刊行物(serials) 뿐이 아니고 51 면에 걸쳐 地理學雜誌에 대한 言語別, 國家別, 地理學 參考文獻集(geographical bibliographies)에 가장 많이 引用된 地理學雜誌, 地理專門誌가 아니면서 地理學 參考文獻集에 실려있는 雜誌名 등이 상세히 분석 연구되어 있다.

수록된 地理學雜誌의 言語別과 國家別 분석을 보면 31개 언어에 걸쳐있고 71개국을 포함하고 있다. 主言語가 英語인 잡지는 41개국에서 발간되고, 스페인어가 11개국, 프랑스어가 10개국, 독일어가 4개국에서 발간되고 있다. 수록된 443종의 잡지중, 202종은 英語를 主言語로 사용한 것이고, 독일어가 63종, 프랑스어가 51종, 스페인어가 22종, 러시아어가 17종이고, 나머지 88종은 22개의 主言語로 되어 있다. 主言語 외에

보충적으로 사용되는 外國語 目次, 表, 要約文 등은 英, 佛, 獨, 露語 등 4개국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보충언어로서 英語를 사용하고 있는 잡지는 수록잡지 중 157종에 달하고, 프랑스어 34종, 러시아어 22종, 독어 9종 등이 보충언어로 사용된다. 수록된 443종의 잡지를 국가별로 보면 독일 54종, 미국 43종, 프랑스 36종, 러시아 21종, 폴란드 19종, 캐나다와 일본이 각각 16종, 유고슬라비아 15종, 인디아 14종 등이고 1종씩 수록된 국가는 27개국이다. 한국은 「地理學」, 「地理學論叢」, 「應用地理」 3종이 수록되어 있다.

主要 地理學 參考文獻集에 높은 빈도로 引用되는 地理學 雜誌를 參考文獻集別로 表로 나타내어 가장 많이 引用되는 잡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地理學雜誌 國際總目錄」에 비교하면 수록된 잡지의 種數는 12.8%에 불과하나 수록된 잡지가 모두 현재 발간 중이고 가장 널리 이용되는 잡지만을 골라서 수록했다는 점에서 이용가치가 높은 목록이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의 地理學 발달의 수준, 地理學 人口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 아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李 燦)

洪慶姬著, 都市地理學

法文社, 1981, 409p.

著者は 머릿말의 初頭に 「20世紀는 都市의 世紀라 한다」라고 말 머리를 때면서 오늘의 都市時代 意味를 매우 함축성있게 시사하고 있다. 과연

이제 人類는 都市와는 不可分の 存在로서 비록 都市에 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엇하나 都市와 무관한게 없을 정도이다. 都市는 물론 都市와

關聯된 現象은 누구에게나 어느 분야에서나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으며 날로 關心의 초점과 폭이 커지고 있음에 注目하게 된다.

이러한 때에 洪慶姬 先生께서는 都市現象에 關한 보다 큰 理解와 認識을 위해 地理學的 接近方法論上에 貫流하고 있는 思考와 技法을 最大로 運用하여 本冊 「都市地理學」을 펴내었다. 이 冊을 펴내기까지 著者는 거의 半生을 都市地理學의 講義와 研究에 몰두하면서 많은 研究論文을 발표하였다. 著者의 年輪과 本書가 出刊된 時期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本書는 單純한 한때의 習作이 아니라 先生의 地理學者로서의 生涯와 精進이 함께 同伴한 作品이란 것을 깊이 느끼게 한다.

本書는 그 內容이 14章에 이르는 방대한 著述이다. 冊의 構成面에서 第1章 「都市의 概念」을 비롯해서 都市地理學의 研究 範圍와 動向이 도입 부분으로 소개되어 있다. 都市發達史·都市化·大 都市地域을 다룬 3개 章에서는 都市의 成長과 發 達·都市化의 國內外 趨勢와 問題 및 都市의 未 來像에 關한 時·空的 次元의 論旨를 地理學的 見 地에서 펴고 있다. 다음 都市의 立地와 形態·土地 利用·都市構造論 등 都市內部 空間組織에 關한 都市地理的 考察을 理論과 原理, 모델과 事例, 說 明과 敘述의 方式으로 3개 章에서 詳述하고 있 다. 이어서 都市間의 空間組織에 關한 地理的 解 釋이 中心地理論을 비롯한 都市體系論에 立脚해서 3개의 章에서 그 說明이 論議되었다. 끝으로 都 市의 機能과 機能分類 및 都市類型에 關한 內容이 13章과 14章에서 敘述 形式으로 言及되어 있다.

本書는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그 內容이 방 대하면서도 內容구성이 체계적으로 짜여져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게 한다. 都市現象 에 關한 多角的 考察과 有關資料의 應用分析은 地 理學徒에게는 물론 都市計劃·都市社會·都市行政 分野의 研究家 및 實務陣에게도 훌륭한 參考書가 될 것이다. 本書는 무엇보다도 都市地理學 基礎教 材의 教科書로서 구비해야 할 要件을 충실히 갖추 고 있다. 간결한 문체와 쉬운 문장은 물론 전문용

어의 개념에 대한 適確한 解說·전문용어에 原語 를 붙인 세심한 配慮, 광범위한 단계 文獻의 各 章 別 수록, 圖解와 表의 적절한 驅使는 그 모두가 선생과 학생을 친절히 이끌어 주기에 가히 絕對的 인 教科書인 것이다.

지난 30년은 地域地理(regional geography)에 對應하여 소위 新地理學(new geography)이 태동 한 시기였다. 특히 50년대와 60년대는 地理學이 空間科學으로서 하나의 地理學 패라다임을 形成한 시기였다. 當代의 科學的 實證主義에 입각한 이른 바 規範的·行態的 接近方法과 그에 관련된 學說 은 都市地理學을 發展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 다. 著者는 理論 導入部門의 章節에서 이와같은 新 地理學의 接近方法을 적절히 受容함으로써 都市 地理學의 研究動向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한 편 敘述部門의 章節에서 過去 都市地理學의 接近 方法을 驅使함으로써 著者는 그의 年輪의 層이 立 證해 주듯이 스스로가 新·舊都市地理學의 架橋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空間科學으 로서의 地理學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태동하기 始 作한 人間中心指向主義—實證主義에 입각한 이른 바 人間의 非經濟人的 行態論知覺役割論(role of perception), 價值追求論 등의 도입에 關한 都市 地理的 관심 素材는 本書의 어느 章節에서도 論議 된 바가 없다. 紙面上의 애로 때문이었는지는 모 르겠지만 結果적으로 著者는 新地理學 初期의 方 法論의 立場에만 置重한 나머지 現代 都市地理學 이 追求하는 광범위한 關心領域을 스스로 제한시 킨 結果를 自招하였다. 次期에 補完을 기대해 본 다.

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著者의 學問의 結實期 에 집필된 本書의 구석 구석에서 그의 都市研究에 對한 學問的 熱意와 自身感을 엿보이게 한다(특히 9章 4節 5項目). 두말할 나위 없이 本書 「都市 地理學」은 重厚한 著述이며, 그 出刊은 斯界의 快 舉이며, 後學들이 必讀해야 할 良書임에 틀림이 없다. (金仁)